

## 소설 심사평\*

김형수

운문을 ‘춤’이라 한다면 산문은 ‘걸음’에 비유된다. ‘흥’을 표출하는 몸짓과 ‘이동’을 수행하는 동작은 다를 수밖에 없다. 먼 길을 가려면 차분히 호흡을 고를 줄도 알고 안정된 보법(步法)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. 산문가에게 늘 훌륭한 문장과 자기에게 맞는 문체가 요구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.

총 19편의 소설 중에서 산문으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갖춘 작품은 6편이었다.

<산새도 오리나무>는 문장도 탄탄하고 호흡도 안정되어 있으나 이야기가 뻗어가는 방향이 본 문학상의 시야를 벗어났다고 보아 배제되었다. 역시 산문 능력이 출중한 또 다른 두 편 <쪽지>와 <명량대첩>은 문체, 소재, 주제의식이 돋보이나 서사 구성에서 실패한 만큼 미완의 작품으로 접어야 했다.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물방울 하나가 어머니의 몸 안에서 10개월을 성장하는 잉태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. 아직 내부에서 여물지 못한 생명을 억지로 끄집어내어 놓으면, 잘못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(세계)와 어머니(작가)를 닮은 생명의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. 두 작품 모두 착상이 뛰어나고, 특히 <쪽지>는 숨 막히는 단편을 가능케 할 내용과 표현력을 갖추었으나 하나의 상황을 다음 상황으로 이어가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서 ‘서사’가 아닌 ‘나열들’에 머물렀다. 타고난 재능은 넘치나 아직 서사의 요령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꼭 귀띔해주고 싶었다.

결국 세 편의 소설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당선을 겨루었다.

<나의 꿈 나의 날개>는 장애인과 혼혈아가 시낭송회에 참가하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투고된 작품 중에서 가장 건강한 목소리로 평가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. 읽는 동안 내내 소박, 진솔, 감동의 물결이 잔잔하게 퍼져 와서 어떻게든 잘 읽은 표시를 해두고 싶었다. 그러나 문장이 서투르고, 예술적 연마가 부족하여 행간에 가득 미숙한 느낌이 퍼져 있어서 도저히 당선작으로 밀어 올릴 수 없었다. 꽤맨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바느질솜씨가 요구된다.

<한여름 밤의 꿈>은 매우 희귀한 작품으로서 현실적 개연성은 떨어지나 무거운 소재를 중압감 없이 극화시켜 가는 솜씨가 상당히 놀라웠다. 5.18현장에서 진압군 장교가 시민군을 공격하면서 부인에게 총격을

가한 후 20년이 흐른 시점에서 복수를 꿈꾸는 딸의 이야기를 통해 거대 담론의 심층을 무표정하게 드러내 보려는 시도는 시사점을 주는 바가 크다고 본다. 그러나 소설은 대중의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다. 이 작품은 독자 앞에 놓이면 무수한 질문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. 영화 시나리오라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지 모르나 소설의 육체는 문자이므로 모든 의도가 문장 속에서 완료되어야 함을 확인시켜준 작품이었다.

<야만적인 너무나도 야만적인>은 당대의 사회운동에 접근해가는 대학생들의 이야기인데, 까다로운 주제를 21세기의 눈높이에서 접근해 간 보기 드문 작품이다. 최근에 정치와 현실의 괴리를 첨예하게 드러낸 ‘뉴 타운 공약’을 연상시키는 현실 소재를 잡아서 끝없이 빈민운동에 집착하는 부잣집 딸과 시장에서 철거당하는 어머니를 통해 자신의 현실을 재인식하게 되는 가난한 집 아들 간의 교류를 현대적인 문체와 시선으로 포착한 솜씨가 돋보인다. 소설로서, 지상의 삶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상의 누추하고 끈끈한 풍경들을 천착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그래도 이 작품이 균계일학이 아니었던가 싶다. 고민 없이 당선작으로 내밀면서 조언할 말은 눈앞의 현실과 대결하는 치열한 산문정신이 부족하다는 점이다.